



IFLA 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

이 선 영*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 유럽은 처음으로 가는 곳이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로 바꿔 타기 위해 탑승구를 향해가는 복도가 어두컴컴한 불빛이라서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되었으며 앞에 가는 일행을 따라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았다. 우리의 숙소는 베를린의 중심 쇼핑 거리로 카데베백화점이 있는 타우엔치거리 크라운호텔로 가는 길에 파괴된 카이저빌헬름교회가 그대로 보였다. 19세기 말 카이저빌헬름 1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나 2차 대전 폭격으로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복원하지 않고 그 옆에 현대식 건물을 건립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아픈 과거사를 기억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었다.

국제회의가 열리는 ICC건물을 1970년대 말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건물의 손잡이와 모든 시설들이 하나하나 아주 튼튼하며 독일인처럼 철저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ICC 1층 등록 데스크에서 개인별 ID카드와 가방, 한국에서 미리 신청한 개인별 도서관 Tour 및 베를린 시내관광 일정에 필요한 티켓과 대회관련 자료집과 업체 안내 팸플렛 등을 받고 관심 있는 주제에 참가 한 후 오리엔테이션에도 모두들 참가하였다.

베를린도서관은 하우스관 1관, 하우스 2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장서량은 약1,000만권으로 1관에 약300만권, 2관에 약500만권이 소장 되어 있지만 장소가 부족하여 제3의 장소에 약 200만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우스 1관은 1661년 브란덴부르크의 프레드리히 선제후에 의해 영주의 도서관 시작되었으며 1702년 프리드리히 영주가 왕으로 승격되어 왕실도서관으로 1918년 Prussian State Library 로 제2차 세계 대전후 The German State Librar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전쟁에서 자료가 손실되는 것을 우려하여 30여개 지역으로 자료를 이전하였는데 동독이 지배하고 있던 곳의 자료는 하우스 1관으로 이관되었고 서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는 라인강 유역의 마브릭 도서관에서 보관하다가 1964년 도서관 건물에 관한 공모를 하여 베를린 공대 교수가 설계한 건축물이 당선되었지만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1967년 착공하여 1978년에 완공되어 현재 하우스 2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있다.

* 국민대학교도서관 대리, lvivasun@hanmail.net

하우스 2관의 대지는 78,000평이며 건평은 약 38,000평으로 지하와 지상 11층으로 되어 있고 지상 6층 이상은 서고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국립도서관은 학술·연구도서관으로 분류되며 하우스 1관의 위치는 Unter den Linden 거리 훔볼트 대학 옆에 있으며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필사본, 지도, 음악자료등 1960년 이전의 자료를 폭넓게 소장하고 있으며 1,300여개의 작업실 및 열람공간이 있다.

하우스 2관은 Postdamer StraBe에 있으며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와 910개의 작업실 및 열람공간이 있으며 약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1일에 0.50유로, 일주일은 2.50유로, 연간 사용료는 15유로를 받고 있다. 1년 도서 구입과 보수를 하기위한 예산이 1,000만유로 정도라고 한다.

이용자는 18세 이상 모든 자국민과 유럽공동체 국가 국민, 외국인은 3개월 이상 비자소지를 한 사람은 대출도 가능하며 좌석수가 850석으로 1일 이용자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용자의 70%가 학생이며 33,000명이 이용자로 등록이 되어있다. 자료관리는 주제별 분류되어 주제관으로 운영 자체 목록시스템으로 사용, 개가제로 운영하는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목록검색이 가능하다. 독일 전역 4,300개 도서관이 함께 운영하는 저널DB는 15,000여종 검색되며 1500년대부터 간행된 연속간행물부터 폐간된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모두 포함하여 저널의 서지사항 검색만 가능하고 목차, 초록, 원문은 불가능하다.

도서관 출입 시 가방이나 소지품은 별도의 라커에 보관하고 개인 책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연간 50,000권 이상의 장서가 증가 하며 정간물은 38,000종, 연간 상호대차업무는 100,000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며 1909년 이후의 자료는 온라인 목록을 통해 검색이 되고 그 이전의 자료는 마이크로피시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다양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내부의 환경은 107미터의 긴 복도 옆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책을 읽고나서 긴 복도를 걸으면서 사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독일은 날씨가 맑지 않은 것을 사색으로 극복한 지혜를 느낄 수 있었으며 하나하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각도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각 도서관 건물로비에 비치되었던 목록카드함을 없애고 컴퓨터를 통해서만 검색하도록 이용자들에게 검색하는 방법을 제한시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지나간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에 하기보다는 장소의 부족과 자료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없애버리는 데 도서관에서 앞장을 서서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드레스덴을 거쳐 체코의 프라하에 도착을 하여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한국관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 짐을 풀었다. 약간은 피곤하지만 프라하의 야경을 빼놓고 오기에는 아쉬운 것 같아 삼삼오오 모여서 지하철을 타고 1200년경에 세워진 카를교에 도착했을 때 판토마임을 하는 사

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맥주집과 다리위에서 모여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 때의 야경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다.

다음 날 프라하 성을 구경하고 모차르트 영화를 촬영했던 곳을 지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로 이동을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의 모차르트가 결혼식을 하고 마지막 장례식을 했던 성슈테판 성당 안은 많은 관광객들로 복잡하여 우리나라 성당의 엄숙함 보다 관광지라는 느낌이 들었다. 안내를 하는 언어 또한 10여개가 넘었다.

설부른궁전은 마리아 앙뜨와네트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여름 궁전으로 세계 최초의 동물원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의 조상들도 왕비를 위한 궁전을 만들어 주었으면 지금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오스트리아 국가도서관은 궁전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하실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현대적 시설이 함께 갖추어져 있었다. 1700년대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보관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헝가리 국민은 약1,000만명 정도 라고 하는데 물리, 화학, 수학, 의학, 문학 분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을 합치면 모두 16명 정도라고 한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인구가 약 200만 명에 도서관이 약 200개가 있는 것은 TV를 시청하기보다는 책 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을 소중히 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국가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았다.

성마차시성당이 있는 곳은 전체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이 곳 어부의 요새와 몰다우강 전체의 야경을 볼 수 있어서 밤에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회의에 참가하면서 여행하는 것도 배낭여행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이 많다. 회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에 관한 안내를 받으며 실제로 보고 느끼며 함께 참석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면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IFLA대회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많은 도서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